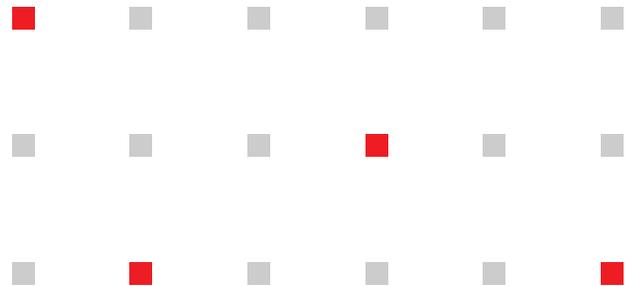




일본의 『보라바이트』 사례와 청년취업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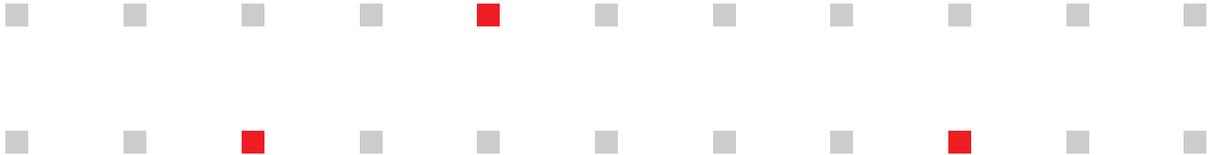


연구진 정명희 부연구위원
김형오 부연구위원

제1장 | 보라바이트란?

제2장 | 일본 보라바이트 및 유사사례 분석

제3장 | 보라바이트 도입쟁점 및 전라북도 도입방안



Issue Briefing

Contents

일본의 『보라바이트』사례와 청년취업의 시사점

I. 보라바이트란?

1. 보라바이트의 개념 및 등장배경 3
2. 국내 청년실업의 문제와 새로운 직업가치의 대두 4

II. 일본 보라바이트 및 유사사례 분석

1. 일본 보라바이트 6
2. 미국 평화봉사단 9
3. 시사점 10

III. 보라바이트 도입쟁점 및 전라북도 도입방안

1. 쟁점 1: 보라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 11
2. 쟁점 2: 제도도입시 정부의 정책적 접근방향 12
3. 도입모델 1_농업·농촌모델 14
4. 도입모델 2_문화관광모델 15
5. 도입모델 3_중소기업모델 16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1장 보라바이트란?

- ◇ 국내 청년체감 실업률이 23%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
- ◇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 청년취업의 신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보라바이트”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청년취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보라바이트의 개념 및 등장배경

● ● 보라바이트의 개념

- 보라바이트는 Volunteer(자원봉사)와 Arbeit(아르바이트)의 일본어적 합성어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며 비영리적 목적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함
- 불황에서 고용창출이 어려운 일본에서 “직업체험”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사회적 기업 등의 붐을 타고 개념화되고 있는 트렌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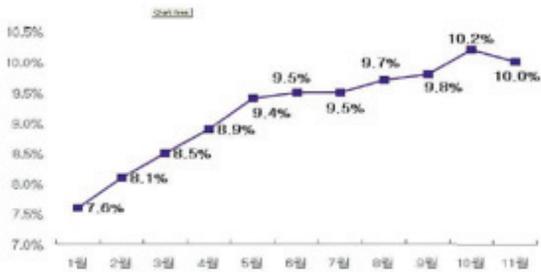
● ● 보라바이트의 등장배경

-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과제에 힘을 기울인다는 점에서는 자원봉사와 공통되며,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돈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활동과 같음
 - “사회적 기업”, “시민기업”, “사업형 NPO(비영리 단체)” 등으로 불림
-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면서 비영리적 목적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아르바이트가 보라바이트가 됨
- 보라바이트는 원래 무상인 자원봉사에 “사례”가 오가는 중간 개념으로 종래의 자원봉사적인 시민운동을 비즈니스 적으로 체계화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유래하였음

2. 국내 청년실업 문제와 새로운 직업가치의 대두

- ● **청년층 일자리 감소폭의 지속적 증가 및 노동시장 미스매치 증가**
 - 청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왔으며, 최근 청년일자리 감소폭이 전체일자리 감소폭을 상회하면서 확대되는 추이임

2009년 실업률추이



전체 및 청년층(15~29세) 일자리 창출 추이



- 청년층 노동시장은 미스매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

〈표 1〉 사업체 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단위: 만 명, %)

구분	10인 이하	30인 이하	100인 이하	300인 이하	300인 이상	전체
부족인원	4.9(3.4%)	4.9(2.4%)	3.8(2.0%)	2.0(1.7%)	1.6(1.0%)	17.2(2.1%)
누적구성비	28.5	57.0	79.1	90.7	100.0	100.0

- ● **경제적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 약화로 일자리 창출 한계**

- 2004년 이후 경기상승기에도 일자리 창출폭은 축소되어 있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직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추이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트렌드 확산

-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정책과 민간참여가 조화를 이룬 제도임
- 직업가치를 포함한 삶의 가치를 경제적 副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두고자 하는 사회적 트렌드가 형성되어 가면서 자원봉사가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자원봉사 참여실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은 18.5%이며, 39.2%는 한번 이상 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원봉사 활동영역은 사회복지(37.2%), 종교단체(35.2%), 지역사회개발(10.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원봉사 활동과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1%가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함



: 통계청(2010)

● ● 직업선택에서 “보람, 자기성취” 요인에 대한 중요성 증가

- 2009년 서울시의 “직업관” 조사에 의하면 직업선택에 있어서 ”보람·자아성취(10.0%) 등을 가장 크게 고려한다는 사람들이 비율이 2005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전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보람이나 자아성취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5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제2장

일본 보라바이트 및 유사사례 분석

1. 일본 보라바이트

● ● 일본의 청년실업에 따른 의식구조 변화

-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실업률은 매우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 특히 청년 구직자의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청년 10명 중 3명이 아무리 취업을 희망해도 취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함

- 그로 인하여 '프리터'와 '니트'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일본의 프리터¹⁾ 수는 170만 명으로 그 세대 전체인구(학생과 주부 제외)의 10%에 육박함. 또한 니트²⁾는 64만 명으로 3% 정도를 차지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고베 대지진(1995년), 아시아 금융위기(1998), 9·11 테러(2001년) 같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보다 위기위식이 높아져 굉장히 자기방어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큰일이 닥칠지 모르니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함

- 내각부가 1989년과 2008년에 각각 실시한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축이나 투자로 장래에 대비하고 있다"고 대답한 20대의 비율이 43.5%에서 57.4%로 증가했음

- 야후 리서치가 2009년 3월에 실시한 '남성의 소비와 연애의식'이라는 조사에 의하면 20대의 소비의식이 확연해진다. "자동차를 소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절대 소유하고 싶다", "가능하면 소유하고 싶다"는 답변을 합쳐도 50%로, 70%인 40대와 20%p의 큰 차이를 보임

- 국제청 자료를 보면 일본 전체 주류세가 2001년 1조 7,000억 엔에서 2006년에는 1조 4,000억 엔으로 약 15% 줄었는데 이는 20대가 술을 별로 마시지 않기 때문임

1) 프리터 : 영어 'Free'와 독일어의 'Arbeit'를 합성한 일본식 조어로, 정확한 정의는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15~34세 인구 중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무직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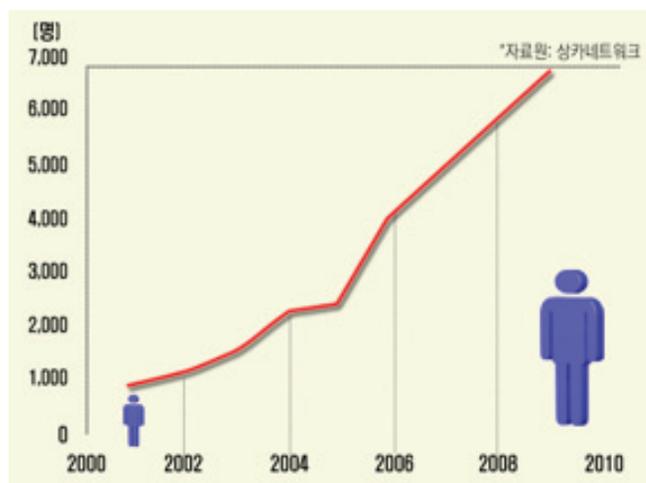
2) 니트 :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학교에도 가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무직 젊은이'를 가리킴

- 일본의 20대들은 자동차나 술은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일에 의의를 느끼거나 목적의식이 생기면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이율배반적 경향을 보임. 금융위기 이후 일본에서는 불황 속에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NGO 활동을 지원하는 채리티(charity)상품의 인기가 높아짐

● ● 청년실업층의 새 구직모델로서 “보라바이트” 대두

- 금융위기 이후 심각해진 취업난에 20, 30대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준비단계로 농사일에 경험을 쌓고자 하면서 보라바이트라는 새로운 구직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볼런티어와 아르바이트로 합성된 보라바이트는 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사회경험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시 및 봉사육구나 자기실현육구 충족에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아르바이트와 차별화됨
- 최근 일본 젊은이들은 특히 메마른 도시환경을 떠나 농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 준비단계로 보라바이트 경험을 쌓고 있음
- 농번기의 낙농가, 캠프장, 장애복지시설, 성수기의 숙박시설 등 일손이 부족한 직종을 보조, 자연체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취업경험이나 지식·기술·경험을 하거나, NPO단체나 봉사활동단체의 임시 스텝으로 일을 할 수 있음
- 노동시간은 당일치기, 1개월 이상의 입주식 장기고용 등 다양하며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보라바이트 하루 8시간 전후로 수당은 시간당 300~700엔 전후이며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지역 농가와 젊은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초기에는 민간주도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NPO단체로 점차 확대 되고 있음

■ 보라바이트 참가자들의 증가 추이



● ● 보라바이트 운영현황

- 현재까지 보라바이트를 경험한 보라바이터 수는 약 1만8000명 정도이고, 참가자의 연령층은 18~22세의 대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뒤를 이어 23~40세의 사회인(프리터, 니트 포함)으로 구성됨
- 최근에는 귀농을 목표로 하여 보라바이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젊은이뿐만 아니라, 단카이 세대(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1949년 사이에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나 명예퇴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홋카이도 지역이 가장 활발하고, 월별로 보면 7월~9월에 참가자 비율이 가장 높음
- 보라바이트 경험담
 - 남성 2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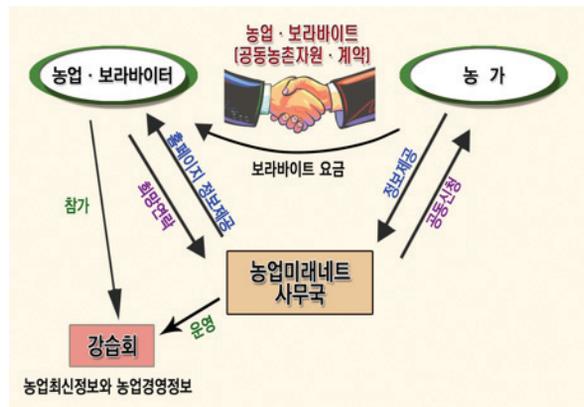
“시골 전원의 풍경에 매료된 점과, 농사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있어 방학을 이용하여 보라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
 - 남성 24세

“향후 고향에서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 받기 위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농가에서 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농사일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 ● 보라바이트 운영사례1: NPO법인 “농업 미래 네트”

- 농업 보라바이트이란, 농업(Agriculture)과 보라바이트(Volunteer+Arbeit)를 조합한 신조어임. 즉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과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를 받아들이고 싶은 농가”를 위한 협동 농업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 시사점이 큼
- 법인명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농업 미래 네트”
- 설립 : 2008년 3월 28일
- 설립 목적 : 일본의 농업 경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농인구의 증가 및 국내 농생산물의 소비향상 운동에 관한 사업을 통하여 식량자급률 높이는 공익사업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
 - 농산어촌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 식량자급률 향상 운동에 대한 계몽사업
 - 농산어촌 활성화에 관한 조언 및 지원사업
 - 농산어촌 상황에 관한 간행물 사업 등

■ <그림1> 농업 보라바이터의 구조



자료: <http://www.nou-mirai.org/beginner.html>



● ● 보라바이트 운영사례2: (주)상카 네트워크

- 보라바이트와 직종을 매칭해주는 상카 네트워크는 보라바이트를 구하는 농가나 목장 등의 사업장은 전국에 약 6,500곳이 네트워크로 구성됨
 - 농가 3,100곳, 낙농가 1,200곳, 숙박시설 1,500곳, 기타 700곳
- 회사명 : 주식회사 상카 네트워크
- 설립 : 1999년 9월
- 주요 사업내용
 - 보라바이트 운영(인터넷 광고 대리 사업)홈페이지 제작
 - 시스템 개발 전반 등

■ <그림2> 보라바이트 모집 정보



2.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 ● 평화봉사단은?

- 평화봉사단은 저개발국가의 교육, 빈곤, 기술개발, 의료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고자 1961년 창설되었음

- 미국 내 취업전망이 불투명한 경기침체에 외국에서 하는 평화봉사단 활동은 직업훈련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40%이상 신청자가 증가하였음

● ● 평화봉사단 참여혜택

- 세계시장을 겨냥한 직업적 개발
 - 평화봉사단을 통해 참여자들은 외국어, 국제적 경험 및 다문화적 이해력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2년간의 봉사활동을 채운 봉사단원은 연방정부의 임용에 있어 1년의 비경쟁 자격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며, 퇴직 후 추가수당이 지급됨
- 봉사활동 이후 취업 알선
 - 평화봉사단을 위한 취업후원 이벤트를 연중 실시하고, 봉사단원의 경험을 고용가능성이 있는 업체와 연계 등 취업을 알선함
- 재정지원
 - 평화봉사단은 근무국가로의 왕복 교통편 비용, 월단위 생활보조금 및 병원 치료비를 제공하고 매월 2일, 2년 동안 총 48일의 연차휴가를 제공함
 - 귀국 후 일정액의 귀국보조금을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연기 등의 혜택

3. 시사점

- 보라바이트 일은 수당은 적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직종을 경험해 볼 수 있고, 해보고 싶었던 일에 대한 노하우·기술 등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음
- 또한 구직형태로 대가보다는 직업 체험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 등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마운 손님이고, 보라바이터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종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함
- 보라바이터와 지역 농가의 니즈가 일치하여 과소지역이나 고령자 비율이 높은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라바이터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의 활기를 불어 넣은 순기능이 적지 않음
- 고용주는 보라바이터를 교육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는지, 인턴이라면 노사관계가 형성되지만 보라바이트는 고용주가 산재 등의 보장은 하는지, 저임금의 고착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됨
- 미국이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평화봉사단을 통해 국제봉사활동에서 찾았다면, 국내에서는 국제적 봉사활동보다 국내 봉사활동에서 이러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쟁점 1 보라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

● ● 청년층의 직업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

- 일본에서 보라바이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대두된 바탕에는 프리터(free-arbeiter)의 증가라고 하는 일본 청년층의 직업트렌드가 있었음
- 그러나 아직 국내 청년층의 직업관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사례를 받아들 이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층의 실업률이 지속될 경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이나 근무조건보다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보라바이트가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됨

● ● 관계기관의 적극적 참여 및 합의

- 보라바이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기업체 등 관련기관이 청년 실업에 대한 공동협약 형식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보라바이트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관·학 연계체계가 필요함
 - 보라바이트가 청년실업층을 대상으로 하나 학생신분에서부터 새로운 직업을 체험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점연계가 필요함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에서도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신 안정적인 인력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공공기관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및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민간에서 이러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나 국내여건상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음

쟁점2 제도도입 시 정부의 정책적 접근방향

보라바이트 참가자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근무여건을 포기하는 대신 사회적 가치(value)와 자기 성취 욕구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구상이 필요함

● ● 추진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 보라바이트를 제도적으로 육성할 경우에 누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보라바이트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의 의미를 가짐
-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를 주도하고 각 지방정부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며, 지역에서 별도로 도입할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할 수 있으나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제도추진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복지 문제가 커질수록 공공의 재정부담이 커지기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금만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보라바이트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인력수급자를 매칭시켜줌과 동시에 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상당부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안전기금(가칭)”과 같은 별도의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1회성 예산, 기금,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기부금을 받아 조성하는 방안이 있음

● ● 제도도입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 보라바이트와 관련한 인센티브는 예산투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만으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고려할 수 있음

1) 4대보험 적용

- 비정규직에 있을 경우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4대보험 가입이라 할 수 있음. 보라바이트로 근무할 경우 사업체와 지방정부가 4대보험을 적용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2) 취업시 관련 보라바이트 경력 인정

- 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에 취업 시 보라바이트를 통한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으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3)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층이 실업상태보다 보라바이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함

4) 보라바이터를 위한 정기적인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박람회 개최

- 보라바이터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채용기업과 일차적으로 연계해주며, 이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 전라북도에 맞는 보라바이트 유형은 무엇인가?

- 보라바이트가 단기에 사회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적으나, 청년층의 새로운 직업모델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농업·농촌형을 중심으로 보라바이트가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대졸 미취업자들을 농업·농촌형 일자리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보라바이트 모델을 제안함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인 “농업?농촌형”
 - 전공자의 미취업률이 높은 “문화관광형”
 - 일자리 미스매치가 높은 “중소기업형”

모델1 농업·농촌형 모델

● ● 필요성

- 도시에는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인구가 고령화 되어 일손 부족으로 농업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음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수는 29.4%로서 거의 30%에 이르러 농촌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농업의 생산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농업생산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희망 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을 농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실정임
- 농업·농촌형 보라바이트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귀농·귀촌" 희망자 또는 직업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구직모델로 제시가능함
 - 일도 도우며, 숙식이 제공되는 농가에서 1주일에서 몇 달 정도의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번잡한 도시를 떠나는 일종의 대안 일자리 찾기임

● ● 적용가능 사례

- 농업·농촌형은 보라바이트의 대표적인 모델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가능함
 - 1) 농촌체험마을 관련 업무보조 지원 및 홍보
 - 2) 농촌 정보화 도우미(도내 정보통신 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 3) 농촌 다문화 자녀 학습도우미 지원
 - 4) 과수원, 목장, 펜션 등에서 농촌 체험
 - 5) 로컬 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업무보조
 - 6) 신규 취농자 지원사업
 - 농업계 학생들이 취농탐색 및 준비과정에서 취농할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주민들과 친분을 쌓도록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 숙식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영농 도제 프로그램 도입

● ● 기타

- 전북도청 내 "농업 보라바이트 추진협의회(가칭)"을 구성하여 농업학교, 귀농학교 출신, 군 제대자, 취농 희망자 등을 선정하여 선도농가, 농기업체, 숙박시설 등에 보라바이트를 파견하여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귀농 후보군을 넓혀가야 함



모델2 문화관광모델

● ● 필요성

- 문화예술분야는 대학생의 취업률이 낮은 상태이며, 특히 정규직의 비율(47.6%)이 공학계열(65.1%)이나 사회계열(54.2%)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 분야의 기초분야는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력양성이 어려움
- 문화인력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전라북도 여건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와 아르바이트 개념이 결합된 문화예술형 취업모델 개발이 필요함

● ● 적용가능 사례

- 2009 문화자원봉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여희망 문화자원봉사활동은 1) 관광진행 보조 및 가이드, 관광정보 안내, 2) 관광지 환경정리, 3) 문화예술기관 행사진행 및 운영보조 4) 체육기관 시설, 단체 및 행사 환경정리 5) 관광관련 사무/행정 보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최소경비 지급”, “실적관리, 포상제도 등 동기부여”, “문화자원봉사 프로그램 다양화”, “자원봉사자 교육기회 확대” 등의 정책요구가 있었음
-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보라바이트를 제안하고자 함
 - 1) 전라북도 관광홍보 알리미, 관광진행 보조
 - 2) 전라북도 관광사업체(식당, 여행사, 숙박시설 등)
 - 3) 노후화된 관광지 환경정리 및 문화예술공연단
 - 4) 문화콘텐츠 관련 행정보조 및 문화행사진행
 - 5) 생활체육지도 관련 보조

● ●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하여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보라바이트와 연계하여 전라북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가능
- 서비스업종 보라바이트는 관광사업체에서 경력 인정 등의 인센티브 부여

모델3 중소기업 모델

● ● 필요성

- 일자리 부족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금수준이나 근무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가치부여가 필요함
- 그러나 중소기업형은 "자원봉사"와 같은 공익의 가치부여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의 새로운 가치부여가 필요함

● ● 적용가능 사례

1) 창의적 기술직 보라바이트

-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서 창의적 기술직 보라바이트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예) 재봉과 재단 등은 전통적인 3D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성있는 리폼전문직은 현대의 창의적인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서울등에서는 의상과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리폼전문점에서 일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2) 서비스 소매업 보라바이트

- 소매업이 중소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방식의 후진성으로 청년층의 직업선호도가 높지 않아 인력난이 심함
- 서비스 마인드 습득 및 새로운 경영방식의 실습 측면에서 가치부여 필요

● ● 인센티브 부여방안

1) 중소기업 경력가산점제도 시행

- 전라북도 지방직 공무원 공개 채용시 일정기간(2년)이상 중소기업 근무시 경력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인력 풀(pool) 작성을 통한 취업관련 정보 우선제공

<참고 문헌>

- 류지성·태원유·조현국·이연오·이안재(2009).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과제」. SERI 경제포커스
손민중(2009). 「만성실업의 탈출: 청년취업 활성화」
이우광(2010). 「日本再發見」.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2009). 「신성장산업 인력수급의 애로와 시사점」. VIP REPORT.
홈페이지 참조 <http://www.volubeit.com/info/hurry.html> <http://www.nou-mirai.org/index.html>